

|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시즌4 제1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4 제1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 홀수 )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㉓	2	18	㉒	2	35	㉒	2	35	㉔	3
2	㉒	3	19	㉒	3	36	㉓	2	36	㉑	2
3	㉔	2	20	㉑	2	37	㉓	3	37	㉓	2
4	㉑	2	21	㉕	2	38	㉓	2	38	㉑	2
5	㉒	2	22	㉒	2	39	㉓	2	39	㉒	2
6	㉓	2	23	㉓	2	40	㉒	2	40	㉔	2
7	㉔	2	24	㉕	2	41	㉔	2	41	㉒	2
8	㉕	3	25	㉓	2	42	㉕	2	42	㉓	2
9	㉑	2	26	㉑	3	43	㉒	2	43	㉕	2
10	㉑	2	27	㉔	2	44	㉔	2	44	㉓	2
11	㉓	2	28	㉓	2	45	㉑	3	45	㉔	3
12	㉕	2	29	㉕	2						
13	㉔	3	30	㉒	3						
14	㉑	2	31	㉔	2						
15	㉒	2	32	㉕	2						
16	㉔	3	33	㉒	2						
17	㉒	2	34	㉔	3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4 제1차 예비평가 해설

## • 공통과목 •

### [1 ~ 3] 독서론

#### 1.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독서법들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련 지식을 탐구하는 독서법은 ㉔(구심적 독서)이 아니라 ㉑(원심적 독서)이다. ㉔은 책의 특정 부분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가는 독서법이다.

**[오답풀이]** ① ㉑은 관련 자료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므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성격을 띠지만 ㉔은 특정 부분을 정밀하게 살피는 성격을 띤다. ② ㉑과 달리 ㉑은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데 힘쓰다가 정밀한 이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㉑과 달리 ㉔은 의심이 풀릴 때까지 계속 궁리하는 독서법으로 책의 특정 부분을 계속 되새기면서 천천히 음미하는 경향을 띤다. ⑤ ㉑은 ㉔으로 보완이 되어야 정보를 확장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폐단이 발생하지 않는다.

#### 2. [출제의도] 특정 인물의 독서법을 참고하여 <보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취사선택하여 재배열하는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가 제시되어 있다.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에서 정보를 계층화하고 재배열하는 것은 지문에 소개된 정약용의 독서법과 흡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연관성에 주목해서 반응해야 한다.

**[정답풀이]** 정약용이 직접 관찰한 것을 위주로 관련 자료를 찾아 나선 것은 아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나서 한 권의 책을 엮을 때에 직접 관찰한 것을 추가로 더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정약용이 정보를 적절하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인터넷 시대에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③ 정보 탐색이 사실 확인에 그치는 것은 정보를 계층화하고 재배열하는 과정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지식을 미처 체계화하지 않고 그저 확충하기만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지식을 확충하면서 스스로 목차를 세워 정리한 정약용의 방법이 활용되면 글쓰기가 짜깁기나 단순한 편집에 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⑤ 정약용은 산만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그 성격에 맞게 하위 갈래로 나누었다. 이는 인터넷 시대에 정보를 계층화하고 재배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 3. [출제의도] 지문을 읽은 학생의 반응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여러 책을 읽어 지식들 사이의 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지식을 확충하려 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책을 골라 그것을 되풀이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이 궁금한 점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학생이 자신의 독서

습관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③ 학생이 새로 접한 독서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학생이 자신의 독서 경험에 비추어 꾸준한 독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4 ~ 9] 사회 통합

####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72쪽

#### 4. [출제의도] 학생의 학습 활동지를 통해 지문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도입 문단에는 소급효의 개념과 유형이 정리되어 있으나 그 개념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② (나)의 도입 문단은 조세 포탈죄를 정의하고, 조세 채무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과 고의범에 해당해야 한다는, 범죄 성립의 두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가)는 소급효의 유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나 예외적 인정 등을 밝히고 판례 변경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는 판례 변경 시의 조세 포탈죄와 관련하여 그 소급 적용으로 조세 포탈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가는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는 형법을 포함한 일반 법률에 대하여, (나)는 세법에 대하여 판례 변경에 대한 소급효의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상황을 비교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개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급효에는 진정 소급효와 부진정 소급효가 있다. 진정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부진정 소급효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즉 소급효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는 효과인 것이다. 부진정 소급효는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크다고 인정될 때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된다.

**[오답풀이]** ① 죄형 법정주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포괄한다. 즉 죄형 법정주의를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급효는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그 뒤에 이루어진 입법에 의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소급 입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입차 관계에는 당연히 새로운 법률이 적용될 것이며, 이를 소급효라 부르지는 않는다. ④ 판례가 법률과 일체로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입장은 소급효 부정설이다. 이 입장은 소급효가 법률의 착오 규정에 의해 인정된다고 본다는 설명과 전혀 관련이 없다. 법률의 착오 규정과 관련하여, 소급효 긍정설은 소급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의 신뢰 보호가 법률의 착오 규정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⑤ 판례를 법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여기는 입장은 소급효 긍정설이다. 이 입장은 판례 변경의 경우 법률의 개정이 아닌 만큼 소급하여 적용해도 된다고 본다.

#### 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질문에 부합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 형법의 법률이 기존 법률과 달리 특정 행위에 대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 유리한 상황의 법률 개정임을 뜻한다. (가)의 둘째 문단에 따르면 원래 형법은 신법에 의할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가벼워질 때에는 신법에 의한 소급효를 인정한다. 즉 ㉔은 맞는 답이다. ㉕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실 관계라는 것은 부진정 소급효를 따져야 할 상황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진정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둘 수 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은 소급효의 적용을 유예한다는 식의 규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㉕는 물음에 맞는 답이다.

**[오답풀이]** ㉑ 진정 소급효가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맞다. 다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모두 금지된다는 설명은 맞는 답이 아니다. 부진정 소급효가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금지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㉒ 이미 종료된 사실 관계에 적용하는 소급효는 진정 소급효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그 금지의 이유가 개인의 신뢰 보호나 법적 안정성 확보에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때 신뢰 보호나 법적 안정성 확보보다 공익상의 사유가 더 크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㉒는 맞는 답이 아니다.

#### 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조세 포탈죄로 처벌되려면 우선 조세 채무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법은 변경되기 전의 조세 판례가 비과세 관행을 정착시킨 상태라면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조세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대법원은 조세 판례의 변경이 법률의 변경은 아니므로 그 변경에 대한 소급효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즉 법률 변경에 한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② 고의범은 자신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이며 그것이 조세 포탈의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고의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사실을 몰라서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③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법률주의를 따른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에 의해 조세 채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따지고, 조세 채무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 여부를 다룬다. ⑤ 조세 판례가 변경되었고 그 내용이 특정 행위에 대해 조세 채무가 성립함을 보였다고 해도 조세 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의범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스스로 오인할 만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검사가 오인하지 않았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의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 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양도 소득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판례 변경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갑은 토지 거래 허가 없이 위법 거래를 하였는데, 그 위법과는 별개로 과거의 판례에 따를 때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으나 새로운 판례를 따를 때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판례 변경 후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대법원의 판단, 이후 고등 법원에서의 파기 환송심을 지문에 근거하여 추측해 보아야 한다.

**[정답풀이]** 파기 환송심에서는 우선 2011년 판례에 따라 조세 채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따져 볼 것이다. 그런데 갑에게 조세 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자. 그럴 경우에는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조세 채무가 성립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갑이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인식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검사가 입증할 필요조차 없다.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고 조세 채무 성립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정한다.

**[오답풀이]** ① 2012년 대법원은 조세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더구나 2011년 판례는 갑에게 불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파기했다는 것은 2011년 판례를 소급하여 적용했다는 것이다. 즉 2012년 대법원은 판례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소급효 긍정설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② 2012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유죄로 보았다는 것은 법률의 착오가 없이 갑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조세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만큼 고등 법원은 우선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고 재판을 이어 갈 수 있다. 이후 고등 법원은 고의성의 판단에 앞서 거래로 차익을 얻으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④ 조세 채무의 성립에 대한 인식이 쉬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면, 이제 입증의 책임은 검사가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다. 즉 갑이 스스로 근거를 제시하여 고의성을 조각해야만 처벌을 면할 것이다. 갑은 자신이 오인할 만한 주관적인 정당화 사유가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9.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문맥상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사유'는 문맥상 '일의 까닭.'이라는 의미이며, ①의 '사유(私有)'는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함. 또는 그런 소유물.'이라는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10 ~ 13] 예술**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35쪽

10.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음악의 기능적 차원에 얽매이지 않는 미니멀리즘 음악에서 평균율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미니멀리즘 음악인 「콤포지션 No.7」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협화도를 유지하고 있는 음정을 지속적으로 연주하는데, 이는 평균율의 완전

5도 음정을 활용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단순한 선율을 반복하는 것은 미니멀리즘 음악인데, 메르텐스는 서양의 전통 음악을 비판하는 대신에 이러한 미니멀리즘 음악을 긍정하였다. ③ 근대 음악의 이론을 체계화한 리만은 일정한 법칙에 따른 화음의 연결을 통해 주제가 전달된다고 보았다. ④ 순정률과 평균율은 7음계에서 온음과 반음의 개수가 동일하다. 순정률뿐만 아니라 평균율의 음계에서도 반음이 두 개이다. ⑤ 서양의 전통 음악에서 음악의 부주제는 주제와 대립한다.

11.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내용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악곡의 전체적 질서를 중시하는 서양 전통 음악은 주제를 구현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만 음들의 고유한 가치를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별 음들의 고유한 가치를 무시하고 개별 음들이 거대한 구조의 단순한 구성음으로 기능하게 한다.

**[오답풀이]** ① 악곡의 전체적 질서는 작곡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한 것인 주제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다. ② 악곡의 전체적 질서는 동시에 울려 형성되는 화음과 음들의 연속적 흐름인 선율에 의해 드러난다. ④ 악곡의 전체적 질서를 중시하는 서양 전통 음악은 주제가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반복되는 서사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제를 드러내는 으뜸 화음은 시작과 끝부분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⑤ 서양 전통 음악에서 중시하는 악곡의 전체적 질서는 개별 음들이 화성을 이루는 구성음들로 기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2.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지문의 특정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두 음이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소리를 들을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은, 최대한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순정률 대신에 음들을 균등한 규칙에 따라 배치한 평균율이 채택되면서, 두 음이 낼 수 있는 조화로운 정도인 협화도가 줄어든 상황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평균율에서는 조바꿈을 하기 전의 원래 음높이에서도 이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② 조바꿈을 하는 과정에서 순정률의 조화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다. 조바꿈을 하기 전에도 이미 평균율이 채택된 상황이어서 순정률의 조화는 깨져 있는 상황이다. ③ 평균율을 채택한다고 해서 관객이 특정 음계의 온음만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평균율은 조바꿈이 일어나더라도 악곡의 전체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채택된 것이다.

13. **[출제의도]** 지문과 <보기>의 대상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콤포지션 No.7」)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미니멀리즘 음악인 ㉡(「In C」)이 제시되어 있다. 정해진 주제를 구현하지 않으며 악곡 전체의 질서를 중시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는 ㉠과 ㉡이 동일하지만, ㉡은 여러 모듈을 우연적으로 엮어 악곡이 진행된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뿐만 아니라 ㉠도 이미 지나간 화음이나 선율을 지시하는 기능 이외의 목적으로 반복적 요소가 활용된다. ㉠에서는 배음들의 다양한 관계를 반복적 요소로 이끌어 내는데, 이

는 순간들의 연속을 느끼게 하면서 각 음의 고유한 가치를 느끼게 할 목적인 것이어서 다른 화음이나 선율을 지시하는 기능과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① 예측 가능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론적인 성격은 미니멀리즘 음악인 ㉠, ㉡에서는 배제된다. ② ㉠, ㉡과 같은 미니멀리즘 음악은 악곡의 완결성보다는 순간들의 연속을 느끼게 하는 음악적 효과가 중시된다. ③ ㉡은 미리 정해진 짧은 선율인 모듈을 반복하여 그 모듈들이 엮어 내는 현재의 음에 충실하도록 작곡되었다. 그러나 ㉠은 두 음으로 이루어진 매우 단순한 악곡인데 두 음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건반을 장시간 눌러 길게 지속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음을 부각시켰다. ⑤ ㉠은 하나의 음 내부에 있는 배음들이 다른 음의 배음들과 다양한 관계로 조합되는 것을, ㉡은 53개의 모듈이라는 서로 다른 선율들이 우연적으로 조합되는 것을 추구한다.

**[14 ~ 17] 과학**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21쪽

1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혈관의 손상 부위를 일차적으로 막는 혈소판은 손상 부위의 내피밑 조직의 콜라겐에 의해 활성화된다. 트롬빈에 의한 혈소판의 활성화는 일차적으로 형성된 혈소판 혈전이 점차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오답풀이]** ② 항트롬빈은 간에서 합성되어 트롬빈을 비활성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로 인해 트롬빈에 의해 활성화되는 혈소판의 수가 줄어들어, 혈전의 성장이 억제된다. ③ 피브리노겐은 트롬빈에 의해 분해되어 피브린으로 활성화된다. ④ 트롬빈은 혈액 내에 존재하는 인근의 트롬빈을 활성화하면서 손상 부위 주변의 혈소판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트롬빈이 많아짐에 따라 활성화된 혈소판을 늘리는 데에 기여한다. ⑤ 활성화된 혈소판은 자신의 내부에 있던 ADP를 방출하는데, 그로 인해 혈소판들의 응집이 촉진된다. 이는 혈소판 혈전이 점차 성장하여 피브린 혈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결국 이 응집에 의해 혈전이 더 견고해지고 커진다.

15.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대상들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피브린 혈전)이 분해되려면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에 의해 플라스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는 손상 부위의 내피세포가 아니라 그 주변의 정상적인 내피세포에서 방출된다.

**[오답풀이]** ① ㉠(혈소판 혈전)은 평상시에는 내피세포에 의해 가려져 있던 내피밑 조직이 손상에 의해 드러나 혈액과 접촉함에 따라 형성된다. ③ ㉠은 조직 인자의 활성화 여부와 무관하게 혈관의 손상을 기점으로 형성되지만, ㉡은 내피밑 조직에 존재하는 조직 인자의 활성화를 기점으로 형성된다. ④ ㉡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이 점차 성장한 후에 피브린이 ㉠을 에워싸으로써 형성된다. ⑤ ㉠은 손상에 의해 드러난 내피밑 조직의 콜라겐에 혈액 속의 혈소판들이 부착됨으로써 형성된다. 그로 인해 일차적으로 손상 부위를 막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은 손상 부위를 막는 것을 넘어 피브린의 영향으로 성장 인자들을 방출하여 손상 부위의 복구를 촉진하기도 한다.

16.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가)의 경우에는 혈관의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내피밀 조직이 노출됨에 따라 혈소판이 콜라겐에 부착되어 혈소판 혈전의 형성이 촉진된다. 또한 PGI<sub>2</sub>의 생성이 억제됨에 따라 혈전의 성장이 억제되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혈관의 많은 부분들에서 거대한 피브린 혈전이 다량 생성될 것이고 이에 따라 혈전증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나)의 경우에는 고리형 산소화 효소의 작용이 한동안 억제됨에 따라 PGI<sub>2</sub>와 TXA<sub>2</sub>가 일시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피세포에서 고리형 산소화 효소가 더 빨리 회복됨에 따라 PGI<sub>2</sub>는 TXA<sub>2</sub>에 비해 먼저 생성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가)와 달리 PGI<sub>2</sub>가 우세하고 TXA<sub>2</sub>가 억제되는 결과를 낳으며, 혈전증의 원인이 아니라 혈전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출혈이 지속되는 출혈성 질환의 원인이 될 것이다.

[정답풀이] (나)에 의해서는 일시적으로 TXA<sub>2</sub>의 생성과 PGI<sub>2</sub>의 생성이 동시에 억제되지만, 결과적으로는 TXA<sub>2</sub>의 생성만이 억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혈관의 손상에 의해 혈소판 혈전이 생성되더라도, 혈소판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PGI<sub>2</sub>가 우세한 상황에서는 활성화된 혈소판의 수가 줄어들어서 혈전이 충분히 성장하기가 힘들어진다.

[오답풀이] ①(가)에 의해서는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피브린 혈전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었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피브린 혈전이 플라스민에 의해 분해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민의 활성화는 혈소판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PGI<sub>2</sub>의 작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②(가)에 의해서는 혈관이 직접 손상되지 않아도 혈전이 형성되기 때문에 혈전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혈소판이 부착되는 콜라겐은 내피세포가 아니라 내피밀 조직에 존재한다. 내피세포에 콜라겐이 존재했다면 혈관의 손상과 무관하게 혈관의 내벽을 이루는 내피세포에 혈소판이 부착되기 쉬웠을 것이다. ③(나)에 의해 일시적으로 PGI<sub>2</sub>의 생성이 억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혈소판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TXA<sub>2</sub>의 생성도 억제되기 때문에 혈전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심지어 PGI<sub>2</sub>가 먼저 다시 생성되는 만큼, 오히려 혈전의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⑤ 혈관의 손상에 의해 내피밀 조직이 혈액과 접촉하게 되면 내피밀 조직에 존재하는 조직 인자의 활성화를 기점으로 응고 인자들의 연쇄적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나)에 의한 고리형 산소화 효소의 억제는 응고 인자들의 활성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7.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비슷하게 쓰인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⑬의 '비롯하다(비롯하여)'는 문맥을 고려할 때 '여럿 가운데서 앞의 것을 첫째로 삼아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도 포함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일상생활 규범을 비롯하여 전통에 관한 지식을 배웠다.'에서 쓰인 '비롯하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 [18 ~ 21] 고전시가

→ 연계 지문: 이황, 「도산십이곡」(수능특강 309쪽)

→ 윤이후, 「일민가」

1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를 바탕으로 한 <제1수>의 해석적 문맥에서 ㉠은, 관직에 나아가든 자연에 은거하든 어느 쪽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초장의 내용과, 이미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인 자신이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 잘못된 일이겠느냐는 중장의 내용에 이어서, 하물며 자신은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는 습성을 지니고 있으니 그러한 습성을 굳이 고쳐서 관직에 나아가야 마땅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이 작품에 부정적인 전망이 담겨 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가)를 바탕으로 할 때, ㉠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고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던 맹자의 가르침이 진실로 옳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가)의 셋째 문단에서, 전대의 시가(즉 17세기의 전대인 16세기의 강호 시가)에서 자연이 풍류와 심미를 통해 충족감을 주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은 '화만산'과 '월만대'로 표현된 자연의 정경을 즐기며 느끼는 흥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제10수>는 '당시(관직에 나아가기 전)'에 '너던 길', 즉 학문과 수양에 힘쓰던 삶을 '몇 해(관직에 있는 동안)'나 버려두었다가 이제야 학문과 수양의 길로 돌아왔으니, '넌 데(다른 곳, 즉 학문과 수양이 아닌 것)'에 마음 두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석에서 「수조가」는 유배를 당한 소동파가 대궐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시라고 했다. 화자가 이 시를 '길게 읊'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수조가」에 담긴 정서와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상실감과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의 설명과도 부합한다. 또한 '호탕하고 미친 흥'은 자신이 그런 상실감 속에서 술에 취해 마치 즐거운 듯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상태('우줄거리니')와 결부된 시구인데, 이를 '행여 남이 알 것인 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복잡한 심사를 이해해줄 사람이 과연 있었느냐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맥으로 보든 (가)를 바탕으로 이해하든 이 부분은 자연이 화자에게 충족감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화자가 자연을 남모르게 혼자 즐기고 싶어 한다는 감정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인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의 '꿈을 깨'었다는 말은, (가)를 참고할 때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세상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거의 생각이 착각임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므로, 작가가 정치적 좌절을 겪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을 다 버리'었다는 말은,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세상을 더 낮게 만드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게 되어 세상을 등지고 자연에 은거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화자는 '물에 뜬 달'을 보며 '밝고도 평온'함을 느껴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다 잊을 것 같다고 하다가, 그런 중에도 '땃힌 마음'이 '북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화자에게 '땃힌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상심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북궐에 달렸'다는 것은 그러한 상심이 대궐, 즉 정치적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혹은 그러한 상심을 임금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④ 화자는 은거 생활의 흥취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다가, '사안의 음악 즐기던 옛일이 오늘'이라 말한다. 이는 '사안'이 은거하며 풍류를 즐기다가 훗날 벼슬길에 나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옛일'처럼, 자신의 '오늘' 은거도 그러한 식으로 끝나기 바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언젠가 은거를 끝내고 중앙 정계로 복귀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⑤(가)를 참고할 때, 이 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이 정치적 현실에 대해 '근심'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자신도 알지만, 그렇게 근심하는 것이 자신의 '천성'이기에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진실로 우습'다는 말로 자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정계에 복귀하여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소망이라 여기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데 대한 작가의 자조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0.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야 우생')는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화자가 스스로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나)의 화자는 벼슬길을 떠나 자연에 묻혀 사는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가 자족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강호의 일민')는 학문과 덕행이 있지만 세상에 나서지 않고 강호에 묻혀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다)의 화자는 현실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자연에 은거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포부를 이루지 못했다는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 그러한 결핍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춘풍에 화만산'한 봄에 느끼는 정서와 '추야에 월만대'한 가을에 느끼는 정서를 '사시가 흥'이라는 하나의 시구로 집약하여 표현하고 있지, 두 계절의 정서가 다르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A]가 계절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전환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B]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만, 화자의 정서가 극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A]의 초장과 중장의 '월만대'와 '한가지라'에 감탄의 뜻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니 끝이 있으리'라는 설의적 표현도 영탄적 어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의 '새로워라'에 쓰인 '-어라'는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며, '각각 있네'에 쓰인 '-네'는 막 깨달은 바를 서술하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로서 흔히 감탄의 뜻을 담고 있다.

### [22 ~ 26] 현대시-수필 통합

→ 연계 지문: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수능특강 317쪽)

→ 유치환, 「선한 나무」 | 윤오영, 「조매」

2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연기’, ‘고무 탄내’, ‘소음’ 등은 ‘여름 밤’의 ‘세검정 길’이라는 시·공간적 배경과 관련된 감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표현들이며, 이를 통해 늦은 밤까지 열기가 식지 않는 도시의 특성을 부각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④ (나)는 ‘고무 탄내가 난다’ 등에서 현재형 진술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는 전반적으로 과거형 진술이 쓰이고 있으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또한 역동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23. [출제의도] 시에 드러난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노송’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울음이 화자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임에도 ‘노송’이 우는 듯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바람’을 인식할 수 있었다. ② 화자는 ‘노송’ 아래 한동안 머무르며 사색과 상상을 통해 ‘천애에 노닐기를 즐겨 하였’다고 말했다. ④ 화자는 ‘노송’이 ‘무참히도 베어 넘겨졌음을 보’고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⑤ 화자는 ‘노송’이 있던 ‘자리에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기도 하지만, ‘술바람 소리 생길 리’ 없는 상황을 인식하며 ‘노송’의 부재를 더욱 실감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향기롭게 출렁이고’를 달빛이 향기롭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은 공감각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순수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원시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지, 물질문명에 매혹된 채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은 투명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가진 ‘유리벽’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간혀 있지만 그러한 속박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② ㉡에서 ‘덩굴져 자라나’는 ‘상품들’은 변성하는 물질문명을 환기하고, 그 ‘상품들’이 걸은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는 ‘색색’의 ‘종이꽃’을 피우는 것은 물질문명의 변성이 내적으로는 공허하다는 점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물이 차 있는 ‘수족관’에서 물고기들이 ‘목마르다’고 한 점에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정신적인 결핍감에 시달리는 현대 도시인의 삶을 환기하고 있다. ④ ㉣에서 ‘시’는 문화나 예술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으며,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들에게 ‘시를 선물하’는 행위에는 그들이 정신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5. [출제의도]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두 작품의 특정 부분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지금도 ‘신운’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증거할 ‘선한 나무(‘노송’)가 없어 ‘신운’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B]는 ‘난정’, 즉 난초의 정과 ‘죽기’, 즉 대나무의 기를 알아야 ‘난초’와 ‘대’를 제대로 그릴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지필로 그린 초목에서 어찌 신운이 표일함을 볼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필로 그린 초목’에서 ‘신운’을 표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화자는 ‘한 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게 두지 못하고 ‘빠개어’ 떨감으로 만들어 ‘육신의 더움을 취’하는 현실을 ‘애석’해하고 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르면, 이는 나무 본연의 생명을 존중하기보다 나무를 인간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오답풀이]** ③ (나)에서 화자가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자,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끊이면서 / 질주하’던 ‘세검정 길’이 어느새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한 ‘아마존 강변’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과열된 문명의 폭주가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 인간이 본연의 순수하고 원시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 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다)에서 ‘한 송이의 꽃’은 존재의 표층에 드러난 현상이고, 나무의 ‘온 그루에 모인 정이 필연적으로 터져서’ 나온 것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말은 현상을 넘어 근원을 살피려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7 ~ 30] 현대소설**

**→연계 지문: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수능특강 162쪽)**

**27.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이는 구보가 다방에 두고 온 단장(= 짧은 지팡이.)을 구보에게 가져다주지만 곧바로 ‘달음질하여 다방으로 돌아가’고 있고 구보는 아이의 뒷모양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그 길을 걸어가 벗의 골동점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아이가 구보에게 벗의 골동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다고 할 수 없다. 구보는 아이가 등장하기 전에는 어디로 갈지 막연해하다가 아이가 다방으로 돌아간 뒤 벗의 골동점을 떠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그 사내와, 구보는, 일찍이, 인사를 한 일이 있었다.’에서, ‘그 사내’가 구보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그 사내와 구보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거의 일시에 머리를 돌리고’ ‘구보는 그의 고요한 마음속에 음울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다. 즉 사내와 시선이 마주치자 이를 피하면서 구보는 우울해하고 있다. ③ 다방을 나온 뒤 구보는 ‘거리의 순서로 벗들을 마음속에 헤아려 보았다’라고 되어 있다. 찾아갈 만한 거리에 사는 벗들을 떠올려 본 것이다. ⑤ 저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 ‘보통학교를 나온 채 이제도록 한 번도 못 만’난 ‘옛 동무’임을 알아차리고는 ‘구보는 그 동무의 이름까지 기억 속에서 찾아낸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28.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방을 나온 뒤 구보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거리 순서로 벗들을 떠올려 보지만 그 시각에 집에 있는 벗이 없을 듯하여 망연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다음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문맥으로 보아 ㉡은 ‘그 사내’와 한 공간에 있는 어색함을 피

하기 위해 다방을 떠나는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이 들어간 문단에서, 서술자는 구보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읊는 듯 진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에 나타난 주어의 반복은, 자신을 알아본 ‘그 사내’와 달리(‘사실 그는 구보의 이름과 또 얼굴을 전부 알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자신은 정말로 ‘그 사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구보의 내면의 진솔함을 강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에서 구보가 괴이하게 여긴 것은, ‘그 사내’가 자신을 볼 때마다 황당하게 또 불쾌하게 시선을 돌린 것에 대해서이다. 그와 구보는 인사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는 구보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고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는 체를 하지 않으니까 모욕감을 느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인데, 이러한 이유를 알게 되자(‘그를 그라고 알아낼 수 있었을 때’) 구보의 마음에는 어두운 그림자(‘암영’)가 드리워졌다고 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자신의 책임이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모르는 동안에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은 소설가인 자신이 골동점에 찾아가는 이유에 해당하므로, 구보가 골동점을 찾아갈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구보는 ‘옛 동무’에게 반말을 쓰다가, 그가 계속 말을 높이자 ㉤에 와서는 자신도 말을 높이고 있다. 곧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어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9.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고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구보의 내면까지 파악하고 있으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등장인물 중 오로지 구보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시각에서 서술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등장인물들은 구보의 시각에서 관찰된 것만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A]나 [B]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A], [B] 모두 구보라는 특정 인물이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그에 대한 구보의 생각과 심리적 반응까지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③ [A]에서든 [B]에서든 인물의 내면이 서술되는 것은 오로지 구보뿐, 여러 인물들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지 않다. ④ [B]에서도 서술자는 오로지 구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시각에서 서술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은 나타나지 않는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기를 자기라 알고도 모르는 체’에서 ‘자기’가 가리키는 인물은 ‘그 사내’이며, ‘모르는 체’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구보이다. ‘그 사내’는 구보가 자기를 자기라 알고도 모르는 체한다고 여겨 마음이 평온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구보가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③ 구보가 골동점을 경영하는 벗을 찾아가지만 그 벗이 십 분 전에 가게를 나가서 만나지 못한 것은 ‘시간적 어긋남’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보가 골동점을 나서면서 그 십 분이란 시간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그 시간적 어긋남으로 인해 자신이 맺어 나갈 인간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까지 섬세하게 고민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④ ‘옛 동무’는 자신의 행색이 초라한 것을 의식해서 구보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보기>와 결부해 볼 때 이는 경제적 형편의 차이가 인간관계를 가로막은 사례라 할 수 있다.

[31 ~ 34]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김만중, 「사씨남정기」(수능특강 239쪽)

31. [출제의도] 지문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설매와 유연수의 대화를 통해 사 씨, 교 씨와 관련하여 유씨 집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고 있고, 임 씨와 유모와 인아의 대화를 통해 인아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과거 일이 인물의 말 속에 제시되고 있으나 전체 서술에서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설매의 말을 통해 교 씨와 동청이 악인임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아가 유씨 가문의 아이인 줄 임 씨가 몰랐던 것은 맞지만, 인아가 그동안 자신의 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임 씨는 인아가 부모 이름은 모르나 ‘큰 집에서 자라던 일’, ‘물가 갈대숲에서 장사꾼의 배를 타고 오던 일’을 또렷하게(‘역력히’) 말했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설매가 자신이 지난날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면 자세한 내막을 말하겠다고 하자, 유연수는 지난 일은 허물로 삼지 않겠다고 해서 집안일을 숨김없이 알려 달라고 하였다. ② 설매는 유연수에게 동청의 여인이 된 교 씨가 동청 가까이 있는 계집종까지 질투한다(‘교 씨 투기 참혹하여 시비 중에 동청의 앞에 가까이 출입하면 엄형으로 다스리니’)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는 목숨을 보전하였으나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다며(‘그 죽을 곳을 알지 못하나다’) 교 씨에게 지짐을 당한 팔을 보였다. 교 씨는 설매까지 질투하여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다. ③ 임 씨가 인아를 불러 들어오게 하자 유모는 인아의 ‘골격이 완전히 우리 공자 같은 지라’라고 하였다. ④ 인아는 유모를 보고 ‘이 반드시 나의 유모’라며, 교 씨가 자신을 데리고 떠나면서 유모에게는 집을 지키라며 자신과 떼어 놓은 일을 기억하여 말하였다.

33.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설매는 사 씨를 ‘자모(자상한 어머니)’라고 칭한 반면 교 씨의 횡포를 ‘호랑이의 입’에 비유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겠느냐고 한탄하는데, 이는 자신이 사 씨를 배신하고 교 씨에게 협조한 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한탄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설매는 ‘소비’라는 표현을 통해 시비(계집종)인 자신을 낮추어 칭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은 교 씨 같이 악한 사람은 본적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상대, 즉 유연수에 대한 고마움과는 무관하다. ③ ㉡은 자신 역시 ‘이 아이(임 씨의 남동생)’가 인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임 씨의 남동생이 인아 같다는 유모의 말에 임 씨가 동의했다고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염려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으면’이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은 서로 이별하던 과거 일에 대한 기억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⑤ ㉢의 ‘어찌 ~ 못하오리이까’에 질문의 방식이 나타나지만, 이는 상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어머니 사 씨를 만난 인아의 감격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임 씨는 자신의 남동생이 인아와 닮았으며 인아를 북경 순천부 호타하에서 잃었다는 말을 유모로부터 듣고, 인아가 북경 호타하에서 장사꾼의 배를 타고 자신의 집 앞까지 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나의 남동생이) 어찌 반드시 인아 아닌 줄 알리오’라고 마음속으로 의문을 던지며 바로 인아를 불러 유모를 만나게 한다. 즉 임 씨는 유모(상대)의 의도를 의심한 것도 재회를 지연시킨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유모와 인아의 재회를 도운 것이다.

[오답풀이] ① 설매가 교 씨의 편에 빠져 사 씨를 내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정실부인 사 씨가 집을 떠나게 함으로써 가문을 위기에 빠뜨리는 데 가담한 것이다. ② 동청이 상공, 즉 유연수를 포함하여 귀양 가게 하고 교 씨가 인아를 강물에 빠뜨렸다는 것은 가부장인 유연수와 적통 후계자 인아를 위기에 몰아넣은 행위로서, 동청과 교 씨의 악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 준다. ③ 설매는 교 씨에게 협력하기도 했지만 사 씨의 아들인 인아를 차마 죽일 수 없어 갈대숲에 두고 온 것인데, 이를 통해 설매가 일방적으로 교 씨 편에만 서지 않고 사 씨 편에서 행동하기도 함으로써 서사를 풍부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임 씨는 인아가 자기 계모의 소생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버려진 아이였다고 알려 주고 있다. 만일 임 씨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인아가 유씨 집안의 ‘공자’라는 사실은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인아의 가문 복귀를 돕는 조력자의 모습에 해당한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76쪽

35.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등지 상자의 설치 활동에 대해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라고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강연을 의뢰하는 전자 우편을 바탕으로 세운 강연자의 계획이 강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자는 ‘등지 상자를 나무에 달아 주면 새들의 개체 수가 늘어나 생태계가 회복된다’며 등지 상자 만들기의 효과로 생태계 회복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서식 동물이 다양해진다고 제시하지는 않았다.

37. [출제의도] 강연을 들은 학생의 듣기 과정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이 ㉢에서 강연 내용인 규격에 대해 의문을 떠올린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규격을 권고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학생은 강연 내용을 ‘의의’, ‘활동 시 고려 사항’으로 구분하여 묶었다. 이를 볼 때 강연 내용을 정보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범주화하여 정리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학생은 강연 내용 중 등지 상자의 설치 방법에 대해 화살표를 사용하여 실행 단계의 순서에 따라 메모했다. 이를 볼 때 세부 정보들의 실행 단계를 파악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38 ~ 42] 작문 - 화법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57쪽

38. [출제의도] 기사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이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새로운 협상을 개최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음료 회사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 밝힌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차 협상은 군청의 중재로 마련되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협상에서는 지하수 취수량과 ~ 안건으로 다루질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회사는 ○○ 음료수의 판매량이 ~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밝히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주민들은 250톤으로, 회사는 300톤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⑤ ‘군청 관계자는 ~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기사에 활용된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2문단에서는 음료 공장 증설 계획, 마을 주민들의 반대 집회, 회사 측과 주민 측의 1차 협상, 군청의 중재 등의 2차 협상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40. [출제의도] 기사의 내용과 협상의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하수의 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 수위 변화를 관측한 후 희망하는 1일 지하수 취수량을 250톤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1. [출제의도] 협상에서의 말하기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지하수 취수 기록과 함께 지하수의 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조건을 들어 1일 지하수 취수량 300톤을 양보 가능한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에서는 상대의 입장에 대한 공감만 나타나고 있을 뿐 자신의 제안을 조정하거나 고충을 제시하여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42. [출제의도] 협상의 후속 기사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기사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언급된 부분이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 발생할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지난 15일 오후 2시에 △△군청 회의실에서’라는 부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② ‘주요 안건의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라고 언급

한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다만 도청과~시일이 걸릴 예정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④ '주민 측은~이행하겠다고 밝혔다.'라는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88쪽

43. [출제의도]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두 글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일기이고, (나)는 건의문이다. (가)에 글쓴이의 주장과 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에 글쓴이의 주장이 약하게나마 제시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나)에도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통의 도입에 관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가)는 (나)와 달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4. [출제의도] 친구의 조언을 반영하여 건의문의 마지막 문단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친구의 조언에 따르면 추가해야 할 내용은 세 가지로, 먼저 '건의 내용을 언급'하고, 변화될 골목 환경과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통을 도입'이라는 건의 내용을 언급하고, '△△로의 골목이 더 깨끗해'진다는 내용과 '주민들이 거리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④가 가장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적절하게 수정·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는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활용해서 △△로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의 자료에 제시된 주민들의 민원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의 인터뷰에는 배출 지정일이 되기 전까지 악취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안에 두는 것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의 자료에 따르면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통은 ㉡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민원 중 86%를 차지하는 악취 문제와 해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건의 내용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에 합당하다는 합리성을 강조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동화 현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5쪽

지문에 따르면 자음 'ㄴ'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소리 나는 자음 간 조음 위치 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음화가 일어난 '막말[망말]'과 달리 자음 간 조음 위치 동화가 일어난 '근거[궁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구개음화는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사 앞에서 [ㅊ, ㅌ]으로 소리 나는 것이다. '이어'는 용언 '있다'의 활용형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ㅇ'은 음절 첫소리에서는 소리 나지 못하므로 다른 비음과 달리 앞말을 비음으로 만들지 못한다. ③ 유음화는 'ㄴ'이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이 되는 현상이다. '낙천론[낙천론]'에서는 'ㄹ'이 [ㄴ]이 되었다. ⑤ '고기'를 [꺠기]로, '아기'를 [애기]로 발음하는 'ㅣ' 모음 역행 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화의 방향과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57쪽

'밥물[밤물]'은 'ㅂ'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으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영향을 주는 음운이 영향을 받는 음운보다 뒤에 있으므로 역행 동화이고, 'ㅂ'이 'ㄹ'과 완전히 동일해졌으므로 완전 동화에 해당한다.

37. [출제의도] 담화에 사용된 언어적 표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4쪽

㉠의 '우리'는 '하늘'과 '다정'을 가리키므로 듣는 이가 포함된 표현이다. ㉡은 '다정'과 '(다정의) 동생'을 가리키므로 듣는 이인 '하늘'이 포함되지 않는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과 ㉡은 모두 대화에서 언급된 '빵집'을 가리킨다. ② ㉢은 앞서 언급한 '식빵'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④ ㉣은 뒤에서 언급될 '내가 먼저 ~ 데리고 와.'를 대신하는 표현이다.

38.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와 부사 파생 접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21쪽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현대어 풀이 '넓이가'와 '높이가'를 통해 ㉠과 ㉡에는 명사 파생 접사가 들어가야 함을 추측할 수 있다. '넓-'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에는 '너비'가, '높-'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에는 '노퍽'이 들어간다. 세 번째 문장의 현대어 풀이 '높이 나는구나'의 '높이'는 부사이므로 ㉢에는 부사 파생 접사가 들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 ㉣에는 '노퍽'이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보어에 대해 이해하고 문장에서 보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2쪽

보어는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성분으로, 보격 조사 '이/가'가 붙어서 실현된다. ㉠의 문장에서는 '사촌뻘이'가, ㉡의 문장에서는 '10도 이상'이 각각 보어로 쓰이고 있다.

[오답풀이] ③ ㉢에서 '모든 것이'는 주어, '재로'는 부사어이다. ㉣에서 '건설 사업이'는 주어, '그럭저럭'은 부사어이다. ㉤에서 '국토의 대부분은'은 주어, '산으로'는 부사어이다.

**[40 ~ 42] 매체 - 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92쪽

40. [출제의도] 제시된 매체의 특성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인쇄 매체에 실린 광고로, 문자 언어와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에 비해 청각 매체를 통

한 광고인 (가)는 문자 언어나 이미지 대신 음성 언어, 음향, 배경 음악 등을 통해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실시간 상호 작용을 통해 수용자가 정보의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쿼어 코드 제공하여 수용자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이다. ③ 특정 어구인 '○○○의 놀라운 효과,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가)이다. ⑤ 음향을 활용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제시하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에만 해당된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나타난 광고의 설득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제품에 함유된 성분으로는 해양 심층수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가)에서 열거가 사용된 부분은 '○○○를 사용하면 주름 개선, 모공 축소, 미백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인데, 이는 제품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이지 함유된 성분이 아니다. 따라서 ㉡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매체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청정 해양 심층수를 사용하는 것과 피부 깊숙이 수분이 공급되는 것을 대립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연결 어미 '-어'는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거나 방법,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43 ~ 45] 매체**

43. [출제의도] 매체 활용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04쪽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후, ~ 건수의 변화', '2. 산악 사고 유형별 발생 비율' 등 전자 우편의 본문 내용 중 일부에 번호를 붙여 항목별로 제시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전자 우편의 제목에서 '신문부'를 '보낸 사람'의 소속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인사말이 제시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뉴스 영상이 게시된 누리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초안에 반영된 매체 자료의 제작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51쪽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 건수의 증가율에 대한 내용'은 막대그래프 옆에 배치된 원 모양의 그림 기호 안에 '약 33% 증가'라고 제시되어 있다. 화살표를 활용해 나타낸 것이 아니다.

45. [출제의도]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48쪽

'가영'은 안전 산행 수칙들에 대한 정보를 '산행 전 수칙끼리, 산행 시 수칙끼리 나란히 배열되도록 재배치'한 다음에 각각을 '산행 전'과 '산행 시'로 묶어 표시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산행 전'과 '산행 시' 수칙을 묶어 표시하고 있을 뿐, 제시된 수칙들을 재배열하지 않았으므로 수정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